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보성군, 돌다리 점검단 예산·행정낭비 막는다

‘돌다리 행정점검단’ 발족·첫 회의 개최



보성군은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성군 돌다리 행정점검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돌다리 행정점검단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속담에 착안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앞으로 보성군이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중복 투자 및 예산과 행정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연계 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고, 사업 간 유기적 관리를 통해 추진절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제 시공 등 재정적 낭비요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첫 회의에서는 현재 군에서 관리중인 '홍암 나철 기념관'을 비롯한 17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되었으며,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점검단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쟁점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협의 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새로운 민선 7기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행정 구현을 위해 이번 점검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경하고 능력 있는 보성군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신안군, 폭염대비 농작물 관리·안전사고주의 당부

신안군은 여름철 연일 지속되는 폭염대비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 와 안전한 농작업 관리로 농업인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바는 논물 흘러대기로 온도저하를 유도하고 규산과 가리비료를 증 시하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을 강화 하여 먹노린재, 잎집무늬마름병 등 병해충 발생을 종점적으로 방제해 야 한다.

발작물은 고온 지속시 수정장애로 착과 불량과 낙과 발생이 우려 되므로 관수실시로 토양 적습을 유지해야 하며, 짚 등으로 토양을 피복하여 수분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하며 고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저병, 역병, 진딧물 등을 철저히 방제한다.

특히, 농업인들은 폭염대비 자주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과 염분을 섭취해 탈수증을 예방하여야 하며,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온열질환 발생 시 신속히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한·중 공동 참조기·부세 치어 방류

영광군, 해상에 치어 20만 마리 방류 실시

영광군은 지난 24일 연산면 향화도항에서 김준성 영광군수, 군의회 강필구 의장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신현석 수산정책실장과 중국 농업농촌부 장시엔량 어업정책관리 국장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중 공동 참조기, 부세 방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방류행사는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어림물고기 방류행사를 올해부터 매년 교대로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중국 순방시 중국 총리와 면담에서 서해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한 양국 어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굴비의 고장 영광군에서 처음 방류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향화도항 행사장에는 참조기와

부세를 전시한 수조, 잠정조치수역에서 수거한 폐고물 사진진 기념방류 등 행사를 진행하였고 사전 방류는 향화도항에서 서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안마도 인근 해역에서 이뤄졌다.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방류하는 참조기와 부세 20만 마리는 연안 지역에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종으로 방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칠산 앞바다는 전국 제일의 굴비산양이 태동한 곳으로 제1회 한·중 공동 참조기, 부세 방류행사를 계기로 양국 종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영광굴비 산업의 명성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구례군,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

구례군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안전 대책을 점검하는 등 행정역량을 폭염 피해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안전점검과를 중심으로 폭염 대비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폭염 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독거노인을 위한 176개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생활관리사 50명을 투입하여 773명의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가 신호대기 중 잠시나마 안전하게 대기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실내체육관 횡

단보도 앞에 그늘막 2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구례읍 관내에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도로 물뿌리기를 실시하여 시가지 열섬현상을 감소시키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원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및 안부진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통해 폭염관련 예방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외작업을 하는 일지리사업장에는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여 시원한 물이나 염분을 섭취하고 이상증세 발견 시 바로

작업관리자에게 알리도록 적극 홍보했다.

또한, 관내 축산농가에는 재해 예방 요령 등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고, 축산종사자 작업 시 짧게 반복적으로 휴식할 것과 밀폐 공간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환기를 시킬 것을 홍보했다.

김승호 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무더위 쉼터인 구례읍 경로당 31개소를 방문하여 폭염에 합류어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를 당부하였고 군 관계자에게 폭염 현상이 다음 달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염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제4회 고흥 해창만 캠핑 페스티벌 개최

고흥군은 제4회 고흥 해창만 캠핑 페스티벌을 28일 오후 6시부터 해창만 오토 캠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핑 페스티벌은 제11회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7.28.~8.1) 개최하여 축제의 열기를 고흥 전역에 불어넣을 예정이다.

메인 행사인 한여름밤 음악여행 콘서트는 CF로 아라방송의 특집 녹화방송으로 진행되며, 오후 7시부터 윤선영, 김동규의 오픈공연을 시작으로 소찬휘, K2김성민, 배따라기, 녹색지대 권신국, 박강수가 출연하여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시원

하게 날려 줄 무대로 꾸며진다.

이밖에도 ▲가상현실(VR) 체험 ▲캠핑요리 경연대회 ▲캠핑용품 전시회 ▲나이트 댄스 뮤직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지킨파티 ▲먹거리 장터 등 푸짐한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번 캠핑페스티벌을 통해 힐링하기 바라며, 사랑받는 연인·가족과 아름다운 추억도 쌓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 해창만 캠핑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 아영장 활성화 지원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로



제4회를 맞는 축제로서, 고흥우주항공축제와 함께 고흥군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청재본부장

함평군, 농업용 드론 활용 교육 실시

이론교육·드론 조종법 등 실무현장 교육 병행



함평군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는 드론을 농작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멀티콥터)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드론 관련 법규(항공역학, 항공법규, 비행운용이론),

시뮬레이터 사용 방법 등의 이론교육과 방제용 드론 조종법과 같은 실무현장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교육으로 농업인들이 드론 자격증 취득하고 다양한 농작업 및 공동 작업에 실제 드론을 활용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한희중(대동면, 남)씨는 "드론을 활용한 파종, 병해충방제 등을 통해 영농경쟁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은 우리 농가들에게 꼭 필요했다"며, "이번 기회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우리 지역에 AI, 구제역 등 긴급 방역이 필요할 때 드론을 활용한 제능기부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이창만 소장은 "앞으로 농업인들이 농업용 드론(멀티콥터)을 실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흥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위원회)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